

#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당초보다450만평줄어들듯, 내년하반기공사착수예정 -

정부는지난6월17개이전대상공공기관선정및시·도배치와혁신도시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혁신도시입지선정, 사업시행자내정을 완료하였고, 혁신도시개발방향에 대한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본구상방향'을 수립하였다. 또한강원, 충북 등 9개 혁신도시에 대해 기본구상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개발 컨셉, 개발 방향, 도시규모, 지구경계등에대해혁신도시별로 여러 차례의 회의, 합동 토론회, 혁신도시 자문위원회, 국제세미나등을거쳐기본구상(안)을다듬어왔다. 이러한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지난 달 10일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4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 지정이 신청되었다. 한편,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도조만간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대구·울산은 이미 택지 개발예정지구로지정되어있다. 기개발지인 부산과 「제주도자치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제주」는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제정·시행되는 내년 초에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다.

## 당초보다 줄어든 1,30만평으로 조정

지금까지 혁신도시별 기본 구상(안) 마련 과정에서수용인구수요분석, 이전공공기관의 부지소요면적,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면적, 상업 등 서비스 시설 면적 등에 대한전문연구기관의분석등을통해위의 표와같이도시규모를제시하였다. 이에따

혁신도시별 면적 규모

(단위: 만평)

| 구분    | 위치                       | 면적      |         | 이전 기관               |
|-------|--------------------------|---------|---------|---------------------|
|       |                          | 당초      | 변경      |                     |
| 대구    | 동구신서동                    | 132.8   | 132.8   | 가스공사, 한국감정원등12개     |
| 울산    | 중구우정동                    | 84      | 84      |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등11개   |
| 광주·전남 | 나주시금천지역                  | 380     | 230*    | 한전, 농업기반공사등18개      |
| 강원    | 원주시반곡동                   | 105     | 105     | 한국관광공사, 석탄공사등13개    |
| 충북    | 진천군덕산면·음성군맹동면            | 275     | 209     | 가스안전공사, 교육개발원등12개   |
| 전북    | 완주군이서면, 전주시중동·상림동·만성동·정동 | 488     | 280*    | 토공, 지적공사등13개        |
| 경북    | 김천시농소면·남면                | 170     | 105     | 도공, 교통안전관리공단등13개    |
| 경남    | 진주시문산읍소문리                | 106     | 126     | 주공, 중소기업진흥공단등12개    |
| 제주    | 서귀포시서호동                  | 18.5    | 34.5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상연구소등9개 |
| 계     |                          | 1,759.3 | 1,306.3 |                     |

주: 광주·전남, 전북도시규모는잠정적인수치임.

르면혁신도시는당초입지선정당시면적(1,75만평, 부산제외)보다453만평이줄어든 1,30만평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원주 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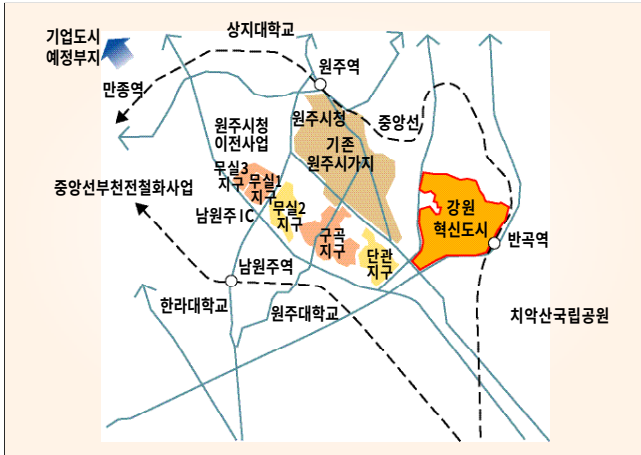
원주혁신도시의원주시반곡동일원105

만평 규모로 대한광업진흥공사등 13개 기관 약 3,60여명이이전하게된다. 도시수용인구는이전공공기관및동반이전기관의토지수요와관련산업유발인구수요등을 포함하여 2만 5,000명(72인/ha, 1만

지난 달 10일 강원·경북·충북·경남 등 4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이 신청되었다. 사진은 올 2월에 있었던 전라남도혁신도시건설지원단개소식.



강원 원주



2,000세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밀도는 22인/ha를 기준으로 쾌적한 전원·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입지여건을 보면 원주 도심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 국도 5호선, 동부순환고속도로 등 기존 교통망 및 신설 예정인 국도 42호선과 연계되어 있어 광역 교통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또한, 낮은 구릉지와 전답으로 형성되어 있어 개발이 용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원주혁신도시는 건강과 생명, 행복이 함께 어우러진 활력 있는 도시, 건강도시, 참살이 도시로서 'Vitality City'를 개발 컨셉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및 원주시 전략 산업과 이전 기능군과의 연계성을 통해

의료, 바이오, 관광 등 전략 산업 및 지역 공동 연구 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전천·음성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약 20만 평 규모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2,37여 명이 이주하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요와 관련 산업 및 서비스업 인구 증가 등 유발 인구를 포함해 수용 인구는 3만 9,000명(5인/ha, 1만 4,000세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밀도는 28인/ha 수준으로 쾌적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입지 여건을 보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충주 기업 도시와 약

경북 김천



50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평택 음성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있으며, 청주국제공항과 오창 과학 산업 단지 와도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과 개발 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낮은 야산과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개발도 용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충북 혁신도시는 벤처기업 집적지로서 벤처창업 지원 및 혁신 인력 양성인 큐베이터 역할을 할 도시로 조성하여 벤처이노폴리스를 컨셉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창, 오송 등 주변 도시와 연계된 벤처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청주·청원의 IT·BT 산업 클러스터와 음성·진천 지역의

충북 진천·음성



경남 진주



정밀 화학·정밀 기기 산업 등을 융합하여 지역및산업네트워크의허브-스포크형클러스터를구축할예정이다.

## 김천 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는김천시남면, 농소면일원 약 105만평 규모로서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 약 3,83명이 이전할 계획이다. 수용 인구는 약 2만 5,000명(74인/ha, 1만 1,000세대)이며, 주거 밀도는 300인/ha 수준이다. 이곳은 김천 구미 철국 경산 포항을 연결하는 경북 내륙 IT산업벨트 축상에 입지해 있고,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지구동측약15km 지점에 위치해 있어 개발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KTX 역사 및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용이하고, 특히 2010년 개통 예정인 KTX 김천역사가 건설되면 대구시와 16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30분, 서울과 1시간 20분 거리로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전담의 낮은 평야 지대로서 개발 이용이하고, 도시를 관통하는 울곡천이 있어 도시내친수공간으로 이용이가능한 여건을갖추고있다.

경북혁신도시는김천-구미의 IT산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T 인큐베이터 역할과 함께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여 산업과 정주를 연계하는 고활력 네트워크 'Plasma City(섬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연구 및 전략 산업과 이 전기 기관의 특성이 연계된 첨단 과학(IT, 농업)과 첨단 교통 시스템 개발 센터 또는 교통 체험 시스템 구축 등 교통의 허브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진주 혁신도시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126만평 규모로서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기관 약 3,500명이 이전할 예정이다. 수용 인구는 4만명(90인/ha, 1만 3,000세대)

인데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토지 수요와 관련 산업 및 인구 유입에 따른 유발 수요를 포함하여 산정되었다. 주거 밀도는 350인/ha이며, 쾌적한 친수·환경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지 여건을 보면 국토 남해안 벨트의 중앙에 위치하고, 남해고속도로와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교차하며 사천공항이 인접하고 있어 광역 교통망 및 개발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특히, 지구 서측이 남강과 접하고, 영천강이 통과하고 있어 도시내친수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주 혁신도시를 남강과 영천강의 친수 공간을 활용한 혁신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 경남도 및 진주시의 전략 산업과 이 전기 기관 기능을 연계하여 주택 도시 클러스터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 지원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 내년 하반기 공사 착수 예정

이번에 지구 지정을 신청한 4개 도시와 광주·전남, 전북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신속한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 지정 절차와 함께 수용 인구 및 주택, 토지 이용 계획 등이 포함될 개발 계획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도시의 개발 절차와 이 전기 기관 및 직원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이 금년 내 제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토지 보상 착수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주공·토공·도공 등 선



도 기관은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

김재규  
건설교통부 혁신도시팀장

인터넷 여행 <http://www.acct.go.kr/>

## 대통령자문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대통령자문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소득 2만 3만 달러 시대에 품격 높은 생활 공간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성숙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시대를 정착시키며, 세계 시장 경쟁 체제에 선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술 문화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좋은 환경 좋은 건축 21'을 모토로 건설 기술과 건축 문화 혁신을 통하여 설계 기술력과 정책 프로그램 기획력을 높이고, 3D 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건설 산업을 명실상부하게 창조적이고 신뢰도 높고 경쟁력 강한 3C(Creative, Credible, Competitive) 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 소개'와 각 분과 위원회별 활동 사항 및 일정이 안내되어 있는 '위원회 활동', '선진화 방안', '위원회의 공지 사항, 보도자료, 홍보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는 '홍보 센터' 위원회의 모든 자료들이 있는 '자료실'과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인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 위원회의 홈페이지가 공식적으로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품격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지향하며 건설 기술과 건축 문화의 혁신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오광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급기술원